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장년·취약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손잡는다

- 자살 예방 인식개선·고위험군 대상자 상호 연계 및 사후대응 협력 -
-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이음센터를 생명 안전망 거점으로 생명위기 양방향 연계 체계 구축-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과 9월 28일(월)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중장년과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적 위기계층의 자살 예방이 범정부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재단의 네트워크를(중장년내일센터·이음센터) 통해 중장년과 취약노동자의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힘을 합쳤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②자살 고위험군과 고용·노동 위기대상자의 상호 연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협력

사업 현장 홍보물 비치, 자살 고위험군 대응 교육 영상 제공·활용

② 자살 고위험군 및 고용·노동 위기대상자 상호 연계

위기 징후 확인 시 관할 자살예방센터 연계 ↔ 고용·노동 지원 필요 시 재단 서비스 연계

먼저 노사발전재단의 전국 사업 현장에 자살예방 홍보물을 비치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제작한 자살 고위험군 대응 교육 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재단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관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고용·노동 분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하면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근로자 상담 등 서비스로 연계하는 양방향 체계를 갖춘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일자리와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삶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 현장에서 중장년과 취약노동자를 만나는 재단이 생명존중의 첫 번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운순 이사장은 "자살예방은 특정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 현장에서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소통전략실	책임자	실 장	양재은 (02-6021-1041)
		담당자	전문위원	윤상철 (02-6021-1022)



- ☐ (목적) 근로자 및 취약노동자 등 자살 위험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고, 재단 사업 연계 등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
- ☐ (일시) 2026. 9. 28.(월), 14시
- ☐ (장소) 노사발전재단 6층 대강의실
- ☐ (참석)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 등
- ☐ 업무협약 주요내용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협력
사업 현장 홍보물 비치, 자살 고위험군 대응 교육 영상 제공·활용
- ② 자살 고위험군 및 고용·노동 위기대상자 상호 연계
위기 징후 확인 시 관할 자살예방센터 연계 ↔ 고용·노동 지원 필요 시 재단 서비스 연계

- ☐ 시행일: 2026. 9. 28.(월) 이후